

# 백기완 선생님께 드리는 한 문학인의 반성문

강형철 시인

2021년 2월 19일 아침 10시 선생님의 유해를 실은 운구차는 대학로를 빠져나와 이화 4거리를 거쳐 종로통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장례대열 앞의 선도차에서는 살아계셨을 때 어디선가 말씀하셨던 육성이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고 그 뒤로는 길을 가득히 채운 만장들이 나부꼈습니다. 풍물패가 징과 북, 장고를 치면서 수많은 깃발을 든 각 단체 장례참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아득하게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로변을 따라 종로 5가, 4가를 거쳐 종각까지 숨죽이며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장례 대열을 근심어린 모습으로 지켜보다가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장례 대열을 쳐다보지도 않고 약간 화가 난 얼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교통 신호를 받느라고 장례 행렬이 때로 더뎠기도 했고, 때로는 장례위원들이 급하게 무슨 말들을 나누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 행렬을 따라 탑골공원까지 갔다가 영결식이 열리는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먼저 갔습니다.

광장에는 100여 개의 의자가 등성등성 놓여있었고 시청 홍보물 아래쪽에 선생님의 얼굴사진이 걸려있었습니다. Covid-19로 선생님의 영결식은 정식으로 허락받지 못한 ‘불법집회’였습니다. 영성하게 처진 줄 밖으로 한쪽 천막에서는 장례 참가 허락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줄쳐진 종이 위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고 가슴에 ‘남김없이’라는 리본을 다느라 핀을 가슴 위에 꽂고 있었고, 저도 리본을 받았습니다.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라고 쓰인 팸플릿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는 풍물패 옆에서 누군가와 휴대전화를 받는 임진택 선생을 만나 눈짓으로 인사를 하고 서성거리다가 대로 끝 차선에 정차한 운구차를 보았습니다. 하얀 리본으로 앞에서 뒤로 두른 운구차는 고요했습니다. 옆에서는 세워진 선생님 모형을 중심으로 풍물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꼭 다물고 세상 끝까지 가겠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힘차게 어떤 이는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복채를 어기치게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들 곁에서 한참을 어물거리며 서성거리다 저는 슬그머니 영결식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저는 제 할 일을 핑계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동안 삼우제(三虞祭)가 있었고 지

금은 벌써 49재(四九齋, 不遷位)를 지낸 시점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는 선생님의 삶을 늘 상기하며 정말 잘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저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간신히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었던 것은 기왕에 영결식을 하려면 좀 걸판지게 하지 이게 뭐냐? 우리의 민중역량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냐는 자책도 하고 저를 포함한 민중 전체의 부족한 역량을 가늠해보기도 했던 모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87년 시청 앞에서 서소문, 아현동까지 백만 명이 넘게 모여 민중의 바다를 이루었던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의 장엄했던 모습과 선생님의 영결식이 대비되면서 한없이 막막해지기도 했던 모습도 떠올립니다.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조태일 시인을 만나던 80년대 초의 오장동 인쇄소 사무실을 떠올립니다. 그때 조태일 시인으로부터 받은 선생님의 책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를 두근거리며 읽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 후로 저는 시인으로 문인단체 일들도 거들기도 하였고 한때는 문화정책의 실행기구에서 일도 했고 생업으로 대학교 교수가 되어 학생들과 함께 시를 공부하면서 꽤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왜 그 책을 새삼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그 책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의미의 시나 글을 한 번도 써본 일이 없이 허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근원적인 성찰이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하면 우리 전체의 문학이 선생님이 앞장서서 독전관처럼 재촉한 문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지요.

시 한 편은 하나의 혁명이며 역사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고, 시는 그러한 인식과 실천이 하나로 통일된 비나리가 되어야 한다. 순수문학이라는 것은 생활상의 구체적 요구를 빼버린 허위의식이며 그것은 일제 강점기라는 구舊식민지 또는 그 이후의 신新식민지 지배질서의 일환으로서의 비인간적 또는 민족 반역적 문화풍토의 한 반영일 뿐이다. 이 땅의 깊숙한 곳에 굽이치는 지하수와 같은 민족적 전통문학의 물줄기를 끌어올려서 오늘의 박토 위로 흘러넘치게 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을 민족문학이라고 나는 부른다고 말씀 하셨지요.

그러나 오늘날 현실의 문학 전반을 보면 자본주의 체제가 현실 속에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

가면서 문학은 삶의 중심으로부터 이탈했고 문학 전문가의 분업행위로 왜소해졌습니다.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일과는 영원히 멀어진 소박한 문화 행위에 안주하게 되었다는 선생님의 뼈저린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분단된 민족의 통일에 함께 참여하고 분단현실을 깨고 나아가며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의식은 아득하게 먼 구호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물론 선생님의 말씀도 그 이후의 우리 현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황에 따라 변증법적 변화가 있었고 문학 혹은 문학인의 대응 또한 변화 발전한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분단상황(분단체제)은 휴전상황으로 이름만 바뀌어 그대로이고, 1945년 2차대전 승전국의 자격으로 남쪽을 분할점령한 미군은 여전히 ‘기지’형태로 위장하여 주둔하고 있으며 국가의 근본적 권리인 전쟁권 조세권 처벌권 중 가장 본원적인 권리인 전쟁권 그 가운데서도 핵심인 전시작전권은 행위 주체의 이름만 바꾸어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지요. 정치 경제 사회분야가 늪에 빠졌을 때 문화일꾼들이 선봉에 서야 하며 그 상황을 깨트리는 봉화불이 되어야 한다고. “혁명이 늪에 빠지면 예술이 앞장서야한다”며 참혹했던 독재시절, 반민족 반민중 투쟁의 현장에서 선생님은 늘 실천의 선봉에도 서 계셨습니다. 또한 정치 군사적인 불구상태는 경제적 불평등의 요소와 결합하여 계급 계층간의 불균등과 대립, 극심한 격차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일반 민중의 삶이 심각하게 피폐, 훼손된 오늘의 현실에서 이를 바꿀 민중적 대안으로 직접 ‘노나메기 세상’을 제창하셨습니다.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며,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되 올바로 함께 행복한 노나메기 세상”을 쉽고도 명확하게 풀어 말씀하셨지요.

이보다 명쾌하게 우리 전체의 삶이 도달할 목표와 길이 동시에 제시된 살아있는 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화적 비전을 넘어 전체 삶의 세계에 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요즘의 많은 사람들이 공명하고 주목하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기본소득을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소득’이란 말로 풀이합니다. 호혜와 환대의 세상을 겨냥하여 자본주의 근대문명의 상호 약탈의 관계를 넘어 인간과 자연 그 자체가 상생하는 생태문명으로 가는 출발지점으로 기본소득이 제시

되고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의 근본 취지나 방법론을 우리말로 더 쉽고 친숙하게 풀어쓴 말이 ‘노나메기 세상’이란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비전이랄까 큰 말은 구체적인 노력이 그 원칙에 따라 실천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실현될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상황과 처지에 맞추어 그 의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실천이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큰 의미가 더욱 풍부해지고 활력으로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문학만이 아니라 문학적 삶으로, 문화행위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의 운동으로 끊임없이 변환하면서도 근본정신을 잃지 않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상의 삶에 매몰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 알고 계셨던지 저희들에게 “한 발짝만 더” “남김없이” 그런 말씀도 하셨지요. 부끄럽고 다시 부끄럽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살아오신 생애 자체가 곧바로 하나의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채찍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생애는 그대로 우리의 현대사이고 그 자체로 구체적 실천 투쟁의 산 역사이며 노나메기 생애였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저희들이지요. 그러한 뜻을 크게 이어받아 더 치열하게 더 엄정하게 실천하면서 아직 못 이룬 좋은 세상 노나메기 세상을 이루는데 나서야 하겠지요.

선생님께 다시 한번 부끄럽고 동시에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승의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저희들 가슴에는 활활 타는 불처럼 살아계셔서 ‘노나메기 세상’을 이루는데 독전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딱 한 발 떼기에 목숨을 걸어라”란 말씀을 오늘 우리들 삶의 세부 실행 방법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